



## 숫자로 본 대한지리학회 60년

형기주(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머 리 말

대한지리학회가 탄생한지 올해로 60년이다. 예로부터 인생 60년이면 이순(耳順)의 나이요 화갑(華甲)의 나이라 하여, 오래 살아남았음을 뜻하는 수연을 배풀었다. 그러나 세상사(世上事) 60년의 세월을 놓고 보면 이제 큰 물굽이 하나를 돌아선 시점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리한 물굽이를 수도 없이 돌아야 한다. E.H.C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 라고 했다. 이것은 역사란 하나의 완제품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물굽이 하나를 돌았다고는 하지만 대한지리학회가 60년간에 치른 일은 엄청나다. 광복의 기쁨과 함께 1945년에 발족한 「조선지리학회」가 1949년 11월 「대한지리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한 채, 6.25 동란과 전쟁 복구기를 작은 모임으로 어렵게 존립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고, 중화학공업 촉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학회도 그 체제가 재건·정비되고 정기적인 발표회를 열고 학회지를 간헐하게 이르렀는데 이때가 1960년대 1970년대로 볼 수 있다. 1975년 11월에는 「학회창립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의가 대성황리에 거행되었다. 그러나 명색이 30년을 회고하는 토론이지만 실제로는 10여 년간에 걸친 학문성과를 대상으로 삼은 학술토론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학회지 창간호가 1963년에 탄생하였고 1966년에 가서 어렵게 제2호가 명맥을 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각 대학에 지리학과와 지리교육학과가 우후죽순처럼 인가·설립되어 대학의 교수 수요가 많아질 뿐 아니라 대학원 석사과정·박사과정 역시 경쟁적으로 태어난 시기이기도 하다.<sup>1)</sup> 현재 총 28개 학과에 이르는 지리학 또는 지리교육(사회교육)학과 중에 17개 학과가 이 기간에 태어났고, 석사과정은 9개 학과, 지리교육석사과정은 12개 학과, 박사과정은 10개 학과가 바로 1970~1980년대 인가·설립되었으니 결국 현존하는 석·박사과정의 대부분은 바로 한국경제 고성장시기의 산물인 셈이다.

1970~80년대에 뿌려진 씨는 1990년대의 지리학 인구와 연구 성과의 대약진으로 연결된다. 우선 국내의 박사수와 발표 논문수의 급증은 물론이려니와 각종 국제적 연구행사(심포지엄)의 성공적 수행, 연2회 간행하던 학술지의 연6회 간행, 여기에 어울리는 학회정관의 개정(법인등록, 투고·심사기준, 회장직선제)등 학회의 현대화·세계화의 노력은 결국 세계지리학회대회 유치와 이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성과로 귀결되었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학회창립 이후 오늘에 이르는 60년의 발자취를 숫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고저 한다. 필자 이외에 다른 한사람이 「한국지리학 60년」을 취급하고, 또 다른 한사람이 「한국지리학의 사회적 기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급하는 발표범위는 「학회 60년사」에 국한되고, 학문자체의 성격이나 질적 수준 등은 논외로 한다. 결국 이 3개 논문을 합치면 「한국의 근대지리학사」가 훌륭하게 엮어질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를 위해서 「대한지리학회지」 통권 108책과 「학회보」 86회분을 가장 많이 활용했다. 그리고 학회 30주년과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간행된 유인물 및 4회에 걸쳐서 간행된 학회회원명부가 유익하게 동원되었다. 이밖에 한국의 제1세대 지리학자 중에 타계하신 분들의 후손이나 친지들을 방문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정확한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 체제·예산·학회지

현재의 대한지리학회 정관은 총 5장 28개조로 구성된 사단법인 정관이다. 이 정관의

최초 모체는 「조선지리학회」 창립총회에서 만들어졌는데 1945년 9월 11일이다. 수송동에 있던 구 중동중학교에서 약 20여 명이 모여 정관을 통과시키고 초대회장에 고김도태 선생(1891~1957.12.26)을 모셨는데 광복 이후 작고하실 때까지 지금의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셨다.<sup>2)</sup>

학회의 정관은 그 후 14차례 걸쳐서 개정·발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정관의 가장 큰 변화는 1988년 11월 14일부터 개정·발효된 회장직선제 개혁, 19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학회의 사단법인 정관이다. 이것은 우리학회가 이전에 비해서 개방화되고 민주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초창기에는 회장·부회장·간사 체제로 운영되었으나 1961년부터 회장·부회장·부장(4)·간사(4) 및 약간명의 이사체제로 운영되었다. 부장과 간사는 총무·연구·교육·출판의 4개 부서로 구성되었는데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부와 홍보부를 신설하는 대신에 교육부의 기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가동하도록 바꿨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외부로부터의 수탁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회부설 「지리학연구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국제부를 신설한 가장 큰 이유는 IGU와의 관계가 급선무이었기 때문이다. 본래, 한국이 IGU에 가입한 것은 1960년 8월 13일, IGU 총회가 스톡홀름에서 열린 때, 고김경성 교수가 한국지리학연합회(이봉수 회장)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sup>3)</sup> 그 후 1971년에 회칙을 개정하여(1971.5.26) IGU 한국위원회 회장을 대한지리학회 회장이 겸임토록하고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 사무국장을 회장이 임명하여 왔었다. 1970년대 이후 대한지리학회 국제부장이 IGU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을 겸하고, 대한지리학회 이사가 IGU 한국위원회 평의원을 겸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때 IGU에 납부하는 회비를 둘러싸고 IGU 한국위원회 회장과 대한지리학회 회장간에 생겼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된 셈이다.

그런데, 대한지리학회장이 IGU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하는 그림은 지리학 인구가 적고 학회의 규모와 기능이 보잘 것 없었을 때에 그런 모습이다. 지금은 역사·문화, 지리교육, 경제, 도시, 지형, 관광, 여성, 지역지리 등 학회 이름으로 가동되고 있는 공동체가 10개 이상에 이른다. 따라서 본래의 취지대로 각 공동체가 모여서 IGU 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장도 따로 임명해야 될 것이다.<sup>4)</sup> 학회가 선진화되었다면 마땅히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1960년대, 학회의 이사수는 10인 내외이었으나, 70년대에 20인 내외, 80년대에 30인 내외, 2003년부터 50인 내외로 확대되어 있다. 그만큼 학회의 몸체가 확대되었음을 반영한다.

학회의 예산에 관해서는 옛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예산기록은 1987년도 예산인데 당시의 화폐가치로 약 1651만원이었다. 확실치는 않으나 필자가 회장을 하던 1970년대 후반의 예산은 약 400~500만원 수준이었던 것 같다. 1987년 이후 5년 간격으로 예산규모를 기록한 것이 표-1이다. 1992년에 2,255만원, 1997년에 5,161만원, 그리고 2004년의 그것은 무려 1억2천여만원의 예산규모로 확대되어 있다. 이것을 1987년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데프레트하면 1992년의 예산규모는 1987년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고 1997년의 그것은 1992년의 그것보다 두 배이상 확대되어 있다. 그리고 2004년의 그것은 1997년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역시 2.5배로 대폭 증대된 모습이다. 역시, 1990년대의 우리학회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된 만큼이나 큰 살림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것은 각종 지원이 많아졌고 1992년에 한국이 2000년 세계지리학회 개최국으로 선정되면서 그 준비에 총력을 기울린 결과이며 동시에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속 효과로도 해석된다.

매년 총예산 중에 회원들이 부담하는 학회비는 얼마나 될까? 1970년대까지는 학회의 정상운영이 매우 어려웠다. 회원수가 적은 데다가 실제로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원수가 50%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sup>5)</sup> 연2회의 학회지 인쇄비 부담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고교 지리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들이 소속 출판사에 부탁하여 학회지 인쇄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회원이 납부한 회비가 정상예산에 접하는 비중은 30%를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1997년은 2000년 세계지리학회(IGU 2000)의 준비에 막

(표 1), 학회 예산의 변화

단위, 천원

연도	A. 정상가	B. 데프레트가	C. 회비	C/A(%)
1987	16,510	16,510	4,740	28.7
1992	22,550	15,500	6,710	29.7
1997	51,610	38,088	18,900	36.6
2004	120,048	98,387	32,560	27.1

주 : ① 1997년은 IGC 관련 비용 2억2390만원을 제거한 금액이고 2004년은 적립금과 각종기금 8556만원을 제거한 액수이다.

② 데프레트가는 각 연도의 예산액을 1987=100 소비자물가 지수로 환산한 액수

바지이었기에 회원의 회비 부담이 36.6%나 되었다.

학회라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학문을 즐기는 학자들 상호간에 학회지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인정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학회지의 양적·질적 평가는 곧 학회와 그 구성원의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1945년에 창립된 우리 학회가 최초의 학회지를 간행한 것은 실로 18년 만이다. 그리고 1964~65년을 공백으로 보내고 1966년에서 1973년까지 일년에 한 권씩 간행하였다. 따라서 학회창립이후 21년 만에 정기간행물의 형식을 갖춘 셈이다. 연간 두 권씩 간행한 것이 16년간(1974~90) 계속되다가 1990년대에 4회(계간)내지 5회, 그리고 2003년 이후에는 연간 6회(격월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것은 대학원 석·박사과정 인가와 해외유학생 등 연구인력이 급증했고,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가 취업·승진에 중요한 척도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1969년 6월에 최초의 투고규정을 제정했고, 1974년과 1980년에 비교적 선진화된 투고규정으로 개혁을 하였다. 1990년대에 들면서 학회지에 대한 정부의 까다로운 평가와 보조가 행하여지고, 등재지 평가가 곧 교수들의 승진이나 연구비 수혜와 연결됨으로서 우리 학회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연 5회의 투고규정 개정(총 13차)을 단행하였다.

한편, 1994년부터 학회지명을 「地理學」에서 「대한지리학회지」로 바꾸고 1993년 이후 계간지 중의 하나는 영문판을 내어 세계화시대의 학회로서 선진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결국, 1963년에 최초의 학술지가 간행된 지 30년 만에 「대한지리학회지」는 계간지(季刊誌), 40년 만에 격월간지(隔月刊誌)가 되어 총 통권(總通卷) 108호(별책호 포함)에 이르는 놀라운 변혁과 초고속 성장이 우리 학회의 위상이다.

(표 2), 시기별 학회지 발간

시기	간행형태	비고
1963	창간호	
1963~66	부정기 간행	1966년 제2호, 64, 65년 결
1966~73	연간 1회	1969년 최초 투고 규정, 68년 결
1974~90	연간 2회	1974, 1980년 투고규정 개혁
1991~92	연간 3회	
1993~97	연간 4회	1회는 영문판, 1994년 학회지명 변경
1998~02	연간 5회	
2003~	연간 6회	

※ 주 : ①1997년 이후 학회지에 게재했던 학회소식란을 제거

②대한지리학회 회보를 발간하여 학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바 총 87호가 나와 있다.

## II. 회원수 · 전공 · 학위

회원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자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학회지에 이름과 근무처만 수록한 자료(1966, 1974, 1978)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별도 명부로 간행하여 그 속에 최종 학력, 학위, 전공, 근무처 등 각종 개인정보를 수록한 자료(1994, 2000, 2002, 2004)가 있다. 1985년과 1987년은 전체 회원수 만을 찾아 적었을 뿐 개인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sup>6)</sup>

대한지리학회 회원수는 1966년에 116명, 1974년과 1978년에는 각각 320명과 458명으로 집계된다. 1980년대 역시 총 회원수는 300~450명 수준이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면 회원수가 800~1000명 선으로 급증한다. 1980년대까지는 등록회원이라 하더라도 학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숫자는 50% 수준에 불과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회원수는 수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각 대학의 대학원 지리학과와 지리교육학과(교육대학원)의 석·박사과정 설립·인가가 많았던 시기였다.

학회회원의 자격은 대학에서 지리공부를 했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학원생이거나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1970~1980년대에 설립·인가된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학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자연적으로 1990년대가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1990년대부터 회원수가 급증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밖에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급증한 회원수는 세계지리학대회를 준비하는 적극적

(표 3), 총회원수 추이(1966~2004)

	회원총수(인)	단체회원수(인)	명부발간
1966	116	N.A	회지에 게재
1974	320	.	.
1978	458	.	.
1985	303	.	?
1987	445	.	1987.6.
1994	775	68	1994.10
2000	748	69	2000.7
2002	852	61	2002.9
2004	998	86	2004.12

인 활동에 기인할 수도 있고, 학회장 선거의 과열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1966년에 겨우 116명이던 우리의 회원수가 지금은 거의 1000명에 이르고, 단체회원도 86군데나 되는 큰덩어리로 급변하여 있다. 이러한 급증현상을 보다 깊고 섬세한 분석을 통해서 그 요인이 해명되어야 한국의 지리학 발전에 유익한 지침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1994년과 2004년의 회원명부에 실려 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학위별 회원분포를 집계·분석하였다. 1994년의 총회원수는 775명, 2004년의 그것은 998명이지만 학위를 명시하지 않은 회원수가 1994년은 306명, 2004년은 45명이다. 따라서 자료 처리가 가능한 회원수만을 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대한지리학회의 회원은 거의가 석사급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학사학위만의 소지자는 1994년에 14%, 2004년에 24%에 불과하다.<sup>7)</sup> 1960년대에는 몇 명 안되었던 박사 소지자가 1994년에 196명, 2004년에 388명에 이르러 각각 확인된 총회원수의 40%를 상회한다. 이것은 새천년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고학력 사회요, 특히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박사학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총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 외국에서 받은 회원은 1994년이나 2004년 간에 약 42~43% 내외로서 국내보다 약간 낮다. 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 수를 보면 역시 미국과 일본에 기울어 있는데 2004년 현재 해외에서 취득한 박사의 47%를 미국, 21%를 일본이 점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일본학위가 7명, 미국이 41명, 영국이 13명, 독일 8명, 프랑스 5

(표 4), 학위별 회원수 분포

단위: 인

학위별	1994년	2004년
학사	66	232
석사	207	333
박사	196	388
국내	111	222
국외	85	166
일본	28	35
미국	36	77
영국	3	16
독일	10	18
프랑스	7	12
기타	1	8
계	469(306명 미상)	953(45명 미상)

※회원명부 1994년, 2004년 판에 의함

※기타는 캐나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가 포함



명이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역시 한국의 학계는 미국편향이 현저하다. 최근에 영국 학위가 급속히 많아지고 일본이 90년대 이전에 비해서 급감한 현상도 괄목되는 현상이다.

전공별 회원수를 분석하기 위해 학회지 13호(1976.6), 즉 학회 30주년 기념 특집호에 실려있는 전공분류를 참조하였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전의 전공분류와 새천년의 그것은 당연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 시대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신생학문은 새로 삽입하되 기존의 전공은 크게 손을 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토양지리학은 지형학 부류에 넣고, 생태학과 식생지리학은 기후학에 넣어서 집계하였다.
- ② 사회지리학은 역사·문화지리 분야에 넣을 수 있으나 「사회·경제사」란 의미를 강조하여 이를 경제지리 분야와 연계하였다.
- ③ 지지와 응용지리 분야에 지역개발 분야를 합계 처리 했다.
- ④ 지도학 분야에 항공사진, 원격탐사, GIS분야를 합계 처리했고, 관광지리 분야를 따로 신설하였다.

이렇게 하여 1994년 775명, 2004년 998명 회원의 전공을 분류 집계한 것이 표-5이다. 여기에서도 전공에 응답하지 않은 회원이 1994년 304명, 2004년에 118명이나 있는데 대체로 이들은, ①전공을 밝히기가 어려운 초·중고 교원일 경우, ②대학원 재학생이지만 아직 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타 회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994년도에는 경제지리(사회지리 포함) 전공자가 월등히 많고, 그 다음이 도시지리(총력·인구포함)전공, 그리고 세 번째가 지형학(토양지리학 포함), 네 번째가 문화·역사지리학 전공자 순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실용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문제제기가 많은 분야에 회원수가 치우쳐 있는 것 같고, 또한 취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2004년의 전공별 회원수 분포를 보아도 명백하게 나타나는데, 경제와 도시지리 분야, 지리교육 분야, GIS 분야, 관광 분야 등이 새천년에 들어와서 역시 매력적인 분야로 들어나 있다. 문화·역사지리 분야는 1994~2004년간에 약 53%의 회원수 증가이지만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사회적 성향으로 보아서 장차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GIS 분야는 지난 10년간에 약 8배의 회원수 증가현상으로 보아서

(표 5), 전공별 회원수 분포

단위: 인

	1994년	2004년
지형·토양	66	100
기후·식생	31	82
촌락·도시·인구	97	135
경제·사회	122	181
문화·역사	58	89
지리교육	38	165
지지·응용	29	35
지도·GIS	7	54
관광	17	30
정치	3	5
학사·방법론	3	4
계	471(304명은 미상)	880(118명은 미상)

※ 1994년 총회원수 775명, 2004년 998명

가장 많이 취업할 수 있었던 분야로 생각된다.

지리교육 분야는 1994년에 38명이던 것이 2004년에 165명으로 확대되어 약 3배 이상의 증가이다. 지리교육 분야는 이렇게 해석된다. 첫째로, 중·고교교사들이 승진과 평점에 유리하도록 교육대학원을 선택하고 동시에 지리교육을 전공으로 택한다는 것, 둘째로, 전국에는 지리교육학과와 교육대학의 수가 많고, 여기에는 반드시 지리교육 전공교수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다른 전공에 비해서 취업의 기회가 많다고 판단한 결과가 지리교육을 전공으로 선호한 회원수의 급증으로 나타난 것 같다.

### Ⅲ. 발표·토론·게재논문

#### 1. 춘·추 발표회와 지지편찬

대체로 어느 학회나 정기적인 모임을 열고 학술지를 간행하는 것이 학회의 주요 사업이다. 정기적인 모임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 의견과 정보

를 서로 교환하는 일이 주무이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활자화한 것이 학술지이고, 이의 질과 양이 국가발전수준의 척도가 된다.

1960년대 이전에는 광복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부정기적으로 모임을 열었고 회원의 대부분은 중학교 교사들이었다.<sup>8)</sup> 1947년 4월 노도양 선생님의 발표논문 'F.Ratzel의 자연환경론 재검토' 이외는 학술 발표에 관한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리고 창립회의에 참석하였던 회원 중에 현재 생존하여 계신 제1세대 지리학자는 노도양·박관섭 두분 뿐이다.<sup>9)</sup> 당시의 모임이 중학교 교사중심이였기에 논의의 주제는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교수요목」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로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필자가 처음으로 참관한 학회 모임은 1955년 10월, 당시 서울중학교에서 거행된 총회로서 서울사대 학생들이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필자 역시 준회원 신분이었다. 수복 직후라 학생들을 제외하면 정회원은 20명도 채 안되었던 같다. 회장에 최복현 교수(제2대), 부회장에 육지수 교수, 그리고 간사(지금의 상임이사)가 약간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역시 연구발표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sup>10)</sup>

1960년 8월 13일 IGU 스톡홀름 대회에서 한국이 정식회원국으로 가입되고,<sup>11)</sup> 12월 18일에 4인의 대학교수(박노식·이찬·이한순·이정면)가 서울문리대 강당에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학술대회 형태로는 대한민국 최초 지리학 논문 발표회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그 이유는 이전에도 발표는 있었으나 발표 후에 학술지에 게재된 일이 없었고, 발표자들 대부분이 중학교 교사 아니면 대학원 재학생이었기 때문이다.

학술발표 대회는 1961년 1월에 지리교사의 강습을 계기로 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5·16 군사 구테타로 인해서 집회가 금지되어 일시 중단 되었다. 1962년 이후에는 춘계·추계로 나누어 계속되었으며 결국, 60년대에 발표된 총 논문 편수는 69편으로 결산된다. 점차 학회의 체제가 정돈되고 논문발표자도 많아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1969년에는 최초의 투고규정이 만들어졌다.

1970년대는 우리의 경제가 수출주도형 고성장시대를 달리고 있었던 시대이고, 지리학과(지리교육과 포함)가 9개교에 신설된 시대로서 춘·추 학회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70년대를 통해서 15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다만, 1972년 가을학회가 위수령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을 뿐이다.

1970년에는 새롭게 다듬어진 학회 회칙이 발효되고,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표 6) 춘·추학회 발표 논문수, 1960~2004

연도	춘	추	계	비고
1960	•	•	4	IGU 가입
1961	2	•	2	5.16으로 중단
1962	7	3	10	
1963	•	•	2	학회지 창간
1964	5	3	8	
1965	8	5	13	
1966	•	•	•	
1967	•	•	•	
1968	7	4	11	
1969	12	7	19	투고 규정 제정
1960~1969			69	
1970	13	9	22	1957.5.17회칙을 개정 발표 (1970.1.1)
1971	9	8	17	
1972	6	•	6	위수령으로 중단
1973	10	7	17	
1974	•	7	7	
1975	6	5	11	30주년 기념(7)
1976	6	7	13	
1977	7	11	18	
1978	7	8	15	
1979	11	12	24	
1970~1979			150	
1980	•	11	11	「한국지리」계약·집필
1981	12	5	17	
1982	10	10	20	
1983	12	7	19	
1984	9	21	30	자연·인문 나누어 발표
1985	15	16	31	
1986	13	10	23	
1987	21	11	31	심포지엄(3)
1988	9	17	26	
1989	16	14	30	
1980~1989			237	
1990	•	•	•	
1991	18	•	18	심포지움 (3)(3)(2)
1992	18	9	27	IGC 한국유치
1993	9	17	26	학회지 연4회
1994	14	14	28	학회지 명칭 개정
1995	16	8	24	50주년 기념(24)
1996	19	19	38	법인등록
1997	22	12	34	심포지엄(6)
1998	21	•	•	학회지 연5회
1999	21	40	61	
1990~1999			277	
2000	20	14	34	세계지리학 대회
2001	42	32	74	사무실구입·이사
2002	50	31	81	
2003	47	47	94	학회지 연6회 한국지리지 출판 심포지엄(3)
2004	61	44	105	한국지리지 출판

주 : ①1963년에는 춘추 발표회가 없었고, 이사회에서 석사논문을 발표했다.  
 ②1972년 추계 발표회는 위수령(1972.10.17)으로 집회가 불허되었다.  
 ③( )는 발표 논문숫자  
 ④1980년 춘계는 광주 민주화항쟁으로 중단되다.

7편의 분과별 주제를 가지고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학회지 「지리학」 13호는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을 모아서 간행한 것이며, 학회 최초의 학술토론회라는 점에서 한국의 지리학 발전의 한 계기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역시 대한지리학회의 발전 속도가 한국경제성장과 잘 어울리면서 행진한 시기로서 춘·추 학회에서 발표된 총 논문 편수는 237편에 이른다. 이것은 70년대의 성과를 53% 초과한 것으로 연간평균으로 보아 60년대가 7편, 70년대가 15편이라면 80년대의 그것은 약 24편이나 되는 숫자이다. 따라서 1984년에는 발표장소를 전국 각지의 지방대학에서 개최하되 인문·자연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1987년에는 국토지리를 강조하는 학회 두 번째의 심포지엄이 거행되었다.<sup>13)</sup>

한편, 1980년대에는 학회 최초로 정부용역사업이 체결되었는데 「한국지지」 총론편을 시작으로 1986년까지 호남, 영남, 서울·경기, 등 총 6권의 저서가 「국립지리원」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관찬지지 이후 최초의 큰 사업으로서 학회 여러 회원들의 분담·집필로 완성된 사업이다.

1980년대를 학회 발표회의 지방화 시대, 「한국지지」의 완성시대라면 1990년대는 가장 역동적인 시대로서 한국지리학의 약진시대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1992년에 「IGC 2000」을 서울에 유치했고, 학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을 뿐 아니라 2000년 세계지리학 대회를 대비해서 각종 국제적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학회지 간행도 계간(季刊)에서 격월간(隔月刊)으로 확대되니 학회에 논문발표를 신청한 건수도 90년대에 총 277건에 이른다. 1990~99년은 과연 우리 지리학회의 “질풍노도의 시대”로 명명할 만하다.

대한지리학회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1992년 이후 준비하여왔던 「세계지리학대회」를 대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다. 이것은 학회 60년사에서 가장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실로서 대한지리학회의 위상을 선진대열에 끌어 올리고, 지리학을 대중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쾌거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조직위원회 회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모든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과 단합의 결과이기도 하다.

“Living with Diversity”라는 화두로 2000년 8월 15~17일에 걸친 이 대행사에는 세계 80여 개국에서 2350명의 지리학자가 참가했고 27개 분과회의, 5개 심포지엄, 플레너리 6개 세션, 국내외 답사, 각종 전시·문화행사가 대성황리에 열렸고 논문 발표만 1200편

에 이른다.

대한지리학에 미치는 「세계지리학회」의 직·간접적 효과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춘·추 학회에 제출된 논문 편수의 급증현상이다. 1990년대에 연간 평균 27.7편이던 논문수가 새천년 부터는 연평균 77.6편(2000~2004년)이라는 놀라운 증가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990년대의 10년 동안에 총277편의 논문이 춘·추 학회에서 발표되었으나 새천년에 와서는 불과 5년동안에 338편이나 쇄도했으므로 돌아오는 5년 동안을 가상하면 2000~2010년간 실로 6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기 2000년의 쾌거는 이 밖에도 「국립지리정보원」이 간행하는 「한국지리지」의 집필과 각종 국토정책을 비판·조언하는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로 귀결되고 있다. 「한국지리지」의 집필은 1980년대에 이어 두 번째의 사업으로서 2003년에 이미 충청편이 간행되었고, 2004년에는 전라·제주편이 완성되었다. 1980년대에 편찬한 「지지」와 작금에 완성한 「지리지」를 비교할 경우에 국토의 「최근세사」를 훌륭히 엮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세계지리학회」를 통해서 얻어진 간접적 효과로는 한국의 이미지 개선, 지리학에 대한 인식변화, 교직 이외의 취업확대, 지리학과 지도에 관한 출판물 수요·공급의 확대 등이다. 1960년, 겨우 IGU에 가입한 한국의 지리학계가 지리학의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위상에 까지 오르는 데에 40년이 걸렸다. 이것은 선진국 어느 나라도 실현하지 못한 기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2. 학술토론 대회(심포지엄)

1975년 11월 30일 학회창립 30주년 기념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시작으로 1987년 3월 2일에는 두 번째의 토론회회가 「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이란 주제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학풍으로 보아 「국학」이 강조되고 있었던 분위기와 함께 지리학에서도 지리학의 전통사상을 재음미하고 학교교육에 있어서 「한국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회창립 이후 1980년대까지는 단 2회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을 뿐인데 1990년대와 새천년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행사가 무려 10여 차례나 개최되었다. 이것은 단적으로 학회의 살림이 그만큼 넉넉해졌다는 것, 학회의 활동이 그만큼 활성화되었다는 것, 학회의 국내외 위상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것 등을 의

미한다. 표-7은 그간에 개최된 주요 토론회를 정리한 것으로서 1990년대에 6회(주제 25편), 새천년에는 4회(16편)가 열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제시된 주제의 성격을 보면 1990년대는 국학과 한국지리, 지리교육, 지역연구 등 국토지리의 중요성과 지리교육의 강화를 호소하는 내용이 주지를 이루고, 2000년 세계지리학회 여행연습의 성격을 띤 「학회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주제 발표만 17편의 논문에 이르는 대규모의 토론회였다. 더구나 1990년대에 거행된 6회의 토론회는 2회가 국제적 성격을 띤 토론회라 주목된다.

새천년에 와서는 「세계지리학회」를 제외하고 4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 논제는 북한문제, 행정수도 이전문제, 독도문제 등 최근에 이슈가 된 시사적 문제를 지리학 쪽에서 취급한 것인데 지리학의 사회적 참여는 바람직한 일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한국지리학의 사회화시기”라고도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표 7), 대한지리학회 학술토론 대회 요약

연월일	주제명	논문수	발표자
1975.11.30	학회 30년 회고와 전망(통권No.13)	7	박노식(박동원), 김연옥, 강대현, 형기주, 노도양(장보용), 정장호(조동규)
1987.3.12	국학으로서 지리학	3	형기주, 박영한, 황재기
1991.4.20	고산자 김정호 사상의 현대적 조명	3	이상태, 원경렬, 양보경
1991.10.25	21세기를 향한 지리교육	3	황재기, 서찬기, 시노하라
1991.11.23	국민교육으로서 국토교육	2	권혁재, 류우익
1995.10.13 ~14	창립 50주년 기념 1. 분단국토의 현실과 통일 국토의 미래 2. 21세기 한국지리학의 도전	3 2	이건영, Dege, 류우익 E.Elhers, J.Olson
	3. 한국지리학 50년의 회고와 전망	12	오경섭, 이현영, 손일, 박삼욱, 남영우, 이문중, 류제현, 최병두, 임덕순, 유근배, 남상준, 이희연
1996.12.7	제7차 교육과정의 체제 개선방향	1	유재명
1997.10.18	지리학과 지역연구	6	W.Moran, R.F.Abler, A. Buttimer, 형기주, 박찬석, 홍철
2000.8.15 ~17	세계지리학회 “Living with Diversity”	1200	80개국 2,350명 참가. 27개 분과회의, 5개 심포지움, 플래너리 6개 세션, 국내외 답사, 각종 문화·전시 행사
2001.12.7	북한국토의 이해와 개발	5	공우석, 이광, 어당, 서문길, 이상준
2003.2.11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	3	안성호, 김형국, 권용우
2005.1.10	신행정수도 추진과정의 교훈과 대안 모색	4	주성재, 이창기, 최병두, 이원호
2005.4.14	독도의 지정학	4	형기주, 양보경, 한현철, 이기석

### 3. 게재된 논문

춘·추학회나 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대한지리학회지」에 모두 게재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심사규정이 까다롭고, 또한 「대한지리학회지」 이외의 논문집에 게재할 길이 여러 갈래있기 때문이다.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수를 연별·전공별로 분류·집계한 것이 표-8이다. 학회지가 창간된 1963년 이후부터 1975년 최초의 기념 심포지엄(1975년)이 열렸던 13년 동안 학회지에 실린 총 논문 편수는 71편에 불과했다. 그것도 1960년대에 간행된 학회지 4책(1963, 1966, 1967, 1969년)에 실린 논문은 불과 21편 뿐이다. 1960년대에 춘·추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69편이므로 가령 학회에서 구두 발표한 논문이 모두 학회지 등재를 희망할 경우 논문의 채택률은 약 30%이다.<sup>14)</sup>

1960년대에 비해서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논문게재 편수가 훨씬 많아졌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 양시기는 각각 100편 내외로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게재논문의 편수가 급증한다. 1990년대의 춘·추학회 발표 논문 편수는 총 277편, 게재 논문 편수는 총 244편으로서 만약에 춘·추학회 발표자 전원이 자신들의 논문을 학회지에 등재하기를 희망했다면 탈락은 불과 33명 뿐이다.

이상과 같은 학회지에 대한 논문 등재의 용량과 공급관계를 다음과 같이 추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60년대는 학회지가 1년 1책이고 그것도 부정기(不定期) 간행이 었지만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지리학의 전문인구도 매우 적었다. 둘째,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지리학과와 신설·인가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곧 지리학 전문인구의 증대로 연결되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타임레그가 있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학회지 간행이 1년 2책이었기에 그런대로 수요·공급에 무리는 없었던 것 같다.<sup>15)</sup> 셋째, 1990년대에 와서 학회지 등재논문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설립·인가된 대학·대학원 지리학과 연구인구의 논문게재 수요가 마침 1990년대 쯤에 와서 많아졌고, 이에 따라 학회지의 간행 횟수도 연간 4~5회 까지 증대되었으므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확대된 셈이다. 특히, 학술지에 대한 학진(學振)의 평가가 교수 승진이 나 연구비 수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위의 평가를 받은 「대한지리학회지」에의 게재가 섣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1990년대 게재 논문 편수의 급속한 증대 요인



중에 1992년 결정된 IGC 2000의 준비과정에서 받은 자극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지리학회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새천년에는 논문게재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2000~2004년 동안에 벌써 260여 편의 논문이 이미 학회지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숫자는 1990년대 10년 동안의 논문게재 실적을 불과 5년 동안에 앞당겨 이룩한 것과 맞먹는 숫자에 해당한다.

어떤 전공의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는지 표-8을 보면서 논문게재의 시기별·전공별 분포를 알아 보자. 1970년대까지는 지형학관계 논문과 촌락·도시·인구관계 논문이 가장 많았다. 1980년대에 와서는 경제·도시지리학 논문 편수가 급증하고, 지형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것은 한국경제가 중화학공업의 고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도시 및 산업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는 경제·도시분야는 물론이고 지역개발을 비롯한 지리학의 응용분야도 게재논문 편수가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또다시 지형·기후·생태 등 자연지리 분야도 다시 급증하고 있는바 이것은 생태환경이나 재해 등 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천년에 와서도 경제·도시·자연환경에 관한 지리학 논문이 주종을 이루면서 동시에 문화·역사지리, 지리교육 분야의 논문편수가 많아지고 있다. 즉, 점차 전공분야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취입이 용이한 분

(표 8), 시기별 전공별 학회지 발표 논문수

(대한지리 학회지 통권1~108호)

전공 \ 기간	'63~'75	'75~'79	'80~'84	'85~'89	'90~'94	'95~'99	'00~'04	'05	계
지형·지질·토양	9	12	5	11	10	26	49	8	130
기후·식생·생태	8	5	3	9	7	17	23	1	73
촌락·도시·인구	14	12	13	14	15	21	28	1	118
경제·사회	17	7	18	12	20	37	54	8	173
문화·역사	8	3	7	4	10	10	27	2	71
지리교육	1	1			13	9	27	2	53
지역개발·응용		1	1	2	8	15	12		39
지도·사진·GIS	2	1	3		7	3	7		23
관광				1	1		6	1	9
정치	2				2	2	3		9
학사·방법론	3	1		3	2	9	2		20
기타	7								7
계	71	43	50	56	95	149	238	23	725

주 : 1963~75년 집계는 "지리학 30년 회고와 전망", (이찬), 지리학 13호, 1976.9.5 참조,

75년 이후는 대한지리학회지 통권 108권을 편자가 분류·집계함. 단, 심포지엄 주제는 제외

야에의 쓸림현상이 팔목되는 것 같다.

학회지가 창간된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42년 동안의 학회지 등재 논문편수를 총취합하여 보면, 경제분야가 173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지형학 분야(130편), 그리고 도시·인구 분야(118편)와 기후·생태지리 분야(73편)의 순서이다. 매우 팔목되는 것은 새천년에 와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오늘의 세계, 오늘의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자연훼손 상태에 있는가를 말하여 주고 있는 증거라 하겠다.

## 맺 는 말

이 글은 「대한지리학회」가 걸어온 60년의 발자취를 숫자를 통해서 일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시도한 내용이다.

광복의 기쁨과 함께 20여 명의 창립회원이 「조선지리학회」란 이름으로 초라하게 출발한 우리학회가 지금은 회원수 1,000여명에, 임원진만으로도 76명에 이르고, 한해의 예산이 1억2천여 만원이나 쓰이는 큰 살림으로 변하여 있다. 1963년에 창간호를 낸 학회지는 한동안 부정기 간행물이었으나 지금은 연간 6회를 출간하는 격월간(隔月刊)으로 확대되고 이 중의 하나는 영문 논문을 실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만 하더라도 우리 회원 중에 박사학위를 지닌 사람은 모두 10명을 불과 했으나 지금은 388명, 이중에 해외박사 만으로도 166명이나 된다. 학회지 창간호가 탄생했던 1963년에 해외에서 취득한 박사는 단 두 사람뿐이었다. 회원들의 전문분야를 보면, 시대의 요청에 따라 경제·도시지리 분야가 많았으나 지금은 이와 함께 지리교육, 문화·역사지리, 지형·기후학 등 비교적 다양한 방향으로 그 스펙트럼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예나 지금이나 학회의 모임은 춘·추 2회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발표되는 논문 편수는 1960년대에 연평균 약 7편이 고작이었다. 이것이 1990년대는 평균 28편, 그리고 2004년 한해에는 무려 105편이나 쇄도했다.<sup>16)</sup> 따라서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수도 1960년대에 불과 21편,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각각 100여편 내외, 1990년대는 244편으로

급증하더니 새천년에 와서는 2000~2004년의 5개년 간에 무려 238편이 등재되었다. 엄청난 변혁이다. 이러한 역량이 결국 새천년에 들면서 「세계지리학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고 한국 지리학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린 결과로 승화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기록들을 참작하여 대한지리학회 60년의 역사를 편의상 5개 시기로 편년을 시도했다. ①창립과 혼돈기(1945~1959), ②재건기(1960~1969), ③체제정비기(1970~1989), ④약진기(1990~1999), ⑤국제화시기(2000~)로 구분하였으나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역사란 완제품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위한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견해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①광복이후 1950년대까지는 생명의 탄생과 그 아픔을 참아야하는 인고의 세월이었다. 그리고 ②재건기는 전쟁의 혼란과 상처를 치유하는 재생의 몸부림이라고나 할까. 학회지가 창간되고 춘·추학회가 열렸으며 한국이 IGU회원으로 가입한 시기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음악의 장단으로 비유하자면 광복의 기쁨을 잃고 암중모색하던 인고의 세월을 「진양조」로 표현한다면, 1960년대의 학회 재건시기를 한서(漢書)의 독경 속도로 생각하여 「중모리」장단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③1970~1980년대의 「체제정비기」는 춘·추학회의 정상적 운영은 물론이고 학회지의 연2회 간행, 학술토론대회(심포지엄)의 개최, 최초의 「한국지지」출판, 투고규정과 학회회칙의 수정 등 빠르지는 않으나 「중모리」보다는 빠른 속도로 착착 전진하던 시기로서 「중중모리」장단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④1990년대를 대한지리학회의 「약진기」로 명명한 것은 회원수가 1980년대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증가했고, 5회의 학술토론대회 및 학회의 법인화를 통해서 학회의 사회화가 진전되었을 뿐 아니라 학회지의 발간도 반년간(半年刊)에서 계간(季刊)내지 연5회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2년 「세계지리학회」의 유치를 계기로 1995년에는 학회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대규모로 열었고, 1996년에는 여행연습을 방불케 하는 국제적 심포지엄을 성대하게 치루었다. 실로 1990년대의 우리 학회는 「질풍노도」의 시대요, 정신없이 달리는 「휘모리」시대였다. ⑤이러한 노력은 결국 새천년에 거행된 「세계지리학회」의 대성공으로 연결되어 한국의 지리학이 이른바 국제화·세계화 시대를 선진 열강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달리는 데는 학회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단합된 격려와 참여가 큰 힘이고, 이미 타계하신 제1세대 지리학자들이 씨를 뿌리고 정성스레 가꾸어주신 공덕이 크다.

본 논문은 어디까지나 학회 발전의 외적·형식적 척도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

리는 앞으로 지리학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의·토론의 풍토를 활성화하여야 하고, 논문의 심사가 엄격하여야 한다. 학회지에 논문 한편 실어보지 못한 회원이 편집위원이 되거나 심사를 맡는 코미디는 있어서 안 될 것이다. 또한, 학회지에 실는 서평은 책의 선전을 위한 서평이 아니고 본질적 의미의 서평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토론의 장으로서 글자 그대로의 서평(書評)이기 때문이다.

학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지리학을 위한 좋은 지침서를 만들어 지리학에 취미를 갖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리학을 전공하도록 이끌어야 된다. 「세계지리학대회」에서 처음 시작한 「지리올림피아드」는 금년에 6차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학회의 특별위원회와 부설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지리학 시리즈, 세계지지 시리즈 등 전집류의 출판과 지리학사전의 출판, 내셔널·아틀라스의 제작 등의 사업이 착수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리학의 저변을 넓히고 전공자를 많이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심포지엄의 개최는 너무 빈번할 경우, 약발이 떨어지지만 지리학의 사회적 참여와 지리학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다. 심포지엄의 주제가 대체로 그때그때의 시사와 연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번쯤은 시사적 이슈와 관계없이 「지리학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도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장을 한번도 열어본 일이 없다.

차제에 두 가지만 더 첨부하자. 하나는 학술원 조직에 관한 문제고, 다른 하나는 학회의 기록보존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명색이 학술원 인문분과의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분과의 일원 내지 시녀로 참여하고 있는 꼴이지 지리학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학술원 인문 제3분과는 정원15명 중에 지리학은 오직 1명이 배당되고 나머지는 모두가 역사학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인문 지리 분야 1명을 추천 의뢰하면서 내막으로는 역사지리를 취택하는 연극을 하고 있다. 지리학이 독립하여 한 분과를 점하든지 아니면 제3분과 내에서 지리학의 몫을 더 할당 받든지, 학회는 학술원이나 교육부 당국을 설득해야 될 것이다.

금번, 논문을 작성하면서 깊이 고민한 것은 1990년대 이전의 기록이 학회에 전혀 보존되고 있지 않은 후진성 때문이었다. 적어도 회의록, 예산, 임원의 조직, 회원명부, 학술활동의 기록은 남아있어야 한다. 마침 현 임원진에서 학회의 아카이브스(Archives)를

구축한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나 기대하여 불만하다.

### 註

- 1) 김영성 : 1989, “한국대학 지리계 학과의 성장”, 지리연구 14집, 한국지리교육학회, p.34
- 2) 오산중학 출신의 독립지사로서 서울시 시사편찬위원이며 서울사대 지리학과에서 역사지리학을 강의하였다.
- 3) 이때의 「한국지리학회연합회」는 영남지리학회, 호남지리학회를 가칭하여 만든 것으로(1959.2.10) 지리학 인구조보야 실제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없었다.
- 4) 프랑스에서는 IGU 프랑스국가위원회 사무국장이 차기 프랑스 지리학회장으로 선출되는 관례가 있다.
- 5) 1974년 320명 등록 회원수 중에 회부 납부는 160명이었다.
- 6) 1994, 2000, 2002, 2004년에 간행된 회원명부의 서문에는 1987년 명부를 참고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1987년도 간행의 명부는 없다.
- 7) 학사학위 소지자 중에는 많은 수가 석사과정 재학생인 경우이다.
- 8) 대한지리학회지 「지리학」 제1호, p.114~115, “학회 연혁과 근황” 참조
- 9) 전계서, p.114 및 대한지리학회보, 1996, 제50호, p.1참조
- 10) 당시의 간사 중에 지금의 총무와 같은 역할을 홍시환 교수(건국대교수, 1999년 12월 30일 작고)가 맡으셨고, 간사 중에 김연옥 교수(전 이화여대 교수)가 유일하게 생존하여 계신다.
- 11) 북한이 가입하기 전에 서둘러 가입했다.
- 12) 발표자 중에 이찬 교수와 이정면 교수는 그 당시 한국지리학계 최초로 미국의 박사학위를 받아 귀국하였고, 발표논문은 각각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이다.
- 13) 심포지엄 제목은 「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이고 발표는 3개 분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 14) 당시에는 지리학의 전문학술지가 「대한지리학회지」뿐이므로 1960년대에 등재된 21편의 논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각 대학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아니면 등재를 포기한 경우이다.
- 15) 여기에서 춘·추학회에서의 구두 발표 논문 편수와 학회지 게재논문 편수의 상관관계에 구속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투고규정에는 등재 논문은 반드시 춘·추학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학회의 비회원이라도 논문에 따라서 게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6) 2000~2004년 동안 연평균 77편이 발표되었다.